

금타 화재, 방재설비 먹통...허술한 안전대책 사실로

오른기서 발화...방화셔터·CO₂ 자동소화장치 작동 안해 대형화재로
직원이 소화장치 수동으로 작동했지만 배관 균열에 분사조차 안돼
오른기 5년간 17회 화재에도 대책 소홀...소방·안전교육도 형식적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허술한 안전대책’으로 인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당시 방화 셔터, 자동소화시설 등 방재설비가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산화탄소(CO₂) 소화설비도, 방화셔터도 작동하지 않고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은 공간도 있는 등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광주일보 5월 19일 6면>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광주경찰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금호타이어 화재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 5월 17일 오전 7시께 금호타이어 광주 2공장 정련동 2층에 설치된 마이크로웨이브 오른 4기 중 4호기(이하 오른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1996년 설치된 천연고무 전용 오른으로, 규모는 2m×5m 수준이다.

화재 당시 오른기 내·외의 소화 및 확산 방지 설비와 시스템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 내에서 화재가 감지되면 오른기 내에서 방화 셔터가 작동한 뒤 CO₂ 자동 소화장치가 작동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두 설비 모두 먹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처에 있던 직원이 CO₂ 소화설비를 수동으로 작동했으나, 그마저도 배관에 균열이 뚫려 있어 소화약제가 새어나와 오른 내로 분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당시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CO₂ 소화설비가 작동했으나 불길 확산이 빨라 진화를 못 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오른기 내 화재는 오른기 바깥에 적치돼 있던 천연고무 더미로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확산됐는데, 이 과정에서 방화문도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오른기에서 최근 5년 동안 17회, 올해만 해도 5회 화재가 발생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대다수 화재는 4호기에서 발생했는데, 1~3호기는 1차 가공을 거친 합성고무를 가열하고 4호기는 불순물이 섞일 가능성 높은 천연고무를 가열하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17회 화재가 발생할 동안 자동 진화 체계가 작동한 사례는 2회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수동으로 진화에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장 등은 잦은 화재에도 정밀한 원인 분석 점검, 위험성 평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재료 및 설비를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 소방 시설 점검은 오른기 외부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며, 오른기 내 소방시설은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점검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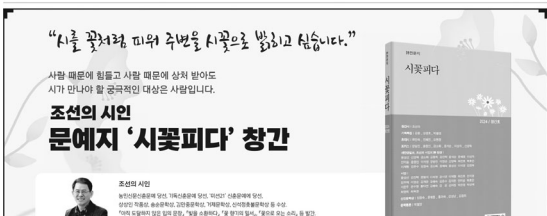
화재 지점에는 인화성 물질인 천연고무가 20여t씩 적치돼 있는데도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 가공 공정은 원료를 장기 보관하지 않고, 임시 보관하는 수준에 그쳐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화재 경보 설비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공장 내 일부 공간에 있던 직원들은 화재 발생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직원 A씨는 3층에 있는 직원휴게실에 있었는데, 이곳에 화재경보설비와 방송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탓에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지 22여분이 지난 뒤에야 화재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뒤늦게 대피하다 척추 등이 골절돼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공장 측이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을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실시한 점도 확인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당시 화재 안전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광주일보 보도(왼쪽). 공장 화재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마이크로웨이브 오른이 불타 채지그러져 있다.

끝내 못 밝힌 금타 화재 원인...현장감식 ‘원인 불명’ 결론

공장장 등 책임자 4명 입건

경찰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원인을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화재가 난 공장 건물이 붕괴할 수 있다며 현장감식 일정을 미루다 화재 3개월만에 감식을 하더니, 결국 현장에 남아있는 정보가 없어 ‘원인 불명’이라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이 때문에 화재에 책임을 져야 할 형사 입건 대상자도 포괄적인 공장 안전 관리 책임자들로 한정돼 반쪽짜리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경찰청은 금호타이어 공장장 50대 A씨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당시 화재 안전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광주일보 보도(왼쪽). 공장 화재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마이크로웨이브 오른이 불타 채지그러져 있다.

소방·안전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업무상 공장 화재 안전 관리를 허술하게 해 화재 피해를 야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화재 당시 발화지점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재료 운반 담당자는 발화 원인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나흘에 걸쳐 소방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현장 감식을 했으나, 현장이 상당히 훼손돼 있던 탓에 아무런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화지점을 비추는 CCTV가 없고, 인근의 CCTV 녹화 내용을 담고 있던 서버가 불타 주변 영상 자료도 사라진데다 발화 순간을 목격한 사람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공장장보다 직급이 높은 금호타이어 부사장 등도 입건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책임자가 공장장으로 돼 있고, 체계상 비상대응상황 보고가 부사장 등 상부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늦어도 오는 12일 까지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학원생 사망 갑질 의혹’ 전남대 교수 “모든 수업 하차”

대학측 “본인이 철회...문제 없어”

대학원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갑질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2025학년도 2학기에 학생 대상 수업을 그대로 맡기로 했던 전남대 교수(광주일보 8월 26일자 6면)가 모든 수업에서 하차했다.

전남대는 ‘전임 교원으로서 필수 수업 시수를 채워야 한다’며 학생 대상 수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교수 본인이 수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뒤늦게 ‘상관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드시(교수가) 수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가 교수 스스로 수업을 거부하면 의무가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남대는 30대 A 교수가 자진해서 “2학기 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라 모든 수업

에서 배제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대는 당초 A 교수에게 2학기 총 9학점의 수업을 맡길 예정이었으나, 모두 철회했다.

앞서 A 교수는 지난 7월 13일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원생이 사망한 이후, 갑질 가해자로 지목돼 업무 배제됐다.

이 때 전남대는 업무 배제 조치와 무관하게 A 교수에게 2학기 수업을 맡기기로 했다. 전임 교수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업 시수를 맞춰 수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전남대는 그러나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다시 입장을 바꿨다. 본인이 수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학교측이 제지하면 위반이지만 본인 스스로 하지 않겠다면 상관 없다는 것이다.

전남대 측은 “A 교수는 직위 해제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상 수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면서 “다만 현행법상 교수가 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학교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대 학칙은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교원 본인이 수업을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업 의무가 달라진다는 내용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남대 해명과 맞지 않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전남 소방공무원 워크숍 참석 후 실종

경찰·소방 수색작업...장흥댐 주변에서 차량만 발견

전남의 한 소방서에 근무 중인 40대 소방공무원이 워크숍에 참석한 후 실종돼 경찰과 소방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4일 장흥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오전 11시 20분께 40대 소방위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이들 간 여수에서 전남 22개 시·군 소방공무원 120여명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던 중 행방이 묘연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기지국 위치를 조회해 이날 낮 12시께 장흥댐 주변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으나 A씨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날 수색에는 경찰과 소방 인력 130여명이 투입됐으며 구조보트 9대, 드론 3대, 수색견 5두 등

이 동원됐다.

현재까지 인근 CCTV에 A씨의 행적이 포착되지 않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 중이다.

경찰은 차량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A씨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실종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